■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55-498.
http://doi.org/10.17948/kcs.2022..96.455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변화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적 대응과 실천*

—의정부 가능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

김태우(金泰佑)**

목 차

1. 서론
2. 미군기지의 설치와 지역 변화의 양상
3. 미군기지의 변화와 주민들의 대응
4. 미군기지 철수에 따른 지역의 위기와 주민들의 실천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의정부시 가능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역동적인 삶의 변화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실천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능동에는 1953년부터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평범했던 농촌 마을이 기지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미 부대 앞에서부터 삼거리까지

* 본 논문은 2021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본 논문에 대해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3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집들이 밀집되었고 1970년대에는 상가거리가 형성되었다. 빼벌은 원래 2-4채 정도의 집만 있었던 곳이었지만 1953년부터 인근에 미군기지가 들어서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을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미군기지가 자리를 잡고 미군들이나 부대를 상대로 한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자 상권이 번성하고 생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나 상점, 음식점, 양복점뿐만 아니라 클럽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실, 방 임대업 등도 늘어났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미군기지 내에서 경비, 세탁, 요리사 등 노무자 생활을 했다. 이러한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가능동과 빼벌은 이웃한 다른 마을에 비해 부자 마을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클럽과 클럽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지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미군기지로 인해 급격하게 마을 혹은 상가거리가 형성되는 와중에도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빼벌에서는 부녀회와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노래자랑 행사는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참여했고 5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당시 빼벌 마을 주민들간의 공동체성과 협력적 관계를 잘 알게 해주는 사례이다. 가능동의 경우는 1960년 전후 부역이나 야경 활동 등이 있었고 본토박이 2세들로 구성된 '구군단친목회'나 상인들의 친목 모임인 '홍운회' 등이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가능동과 빼벌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폐쇄되면서 이들 마을의 경제는 급격하게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주민들은 지역의 재생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빼벌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20여 년간 지속된 토지 분쟁을 극복하고 주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능동의 경우도 여러 주민 자치 단체들이 협력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마을들은 과거 '기지촌'으로 통칭되면서 일률적이면서 단편적인 장소성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기지촌이라는 장소성으로 인해 실제 '기지촌'의 주민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실천과 문화적 활동, 공동체 조직 등이 간과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나름의 공동체 조직과 문화를 생성, 지속하고 있었고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마을을 재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기지촌, 미군기지, 가능동, 빼벌,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문화적 실천, 장소성.

1. 서론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최대 200여 개의 미군기지가 존재했고 미군기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면적은 수억 평에 달하였다.[1] 이러한 미군기지의 존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의 지역(local)에서 미군기지의 설립, 확대, 폐쇄되는 과정은 주변 지역의 흥망성쇠의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변화된 환경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체적인 대응과 실천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미군기지 주변 마을이 '기지촌'[2]이라는 범주로 획일화되면서 미군기지 주변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와 적극적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간과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미군기지 주변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이후 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재생과 활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군기지 주변 마을들[3]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으며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실천을 해나가는지를 의정부시 가능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정부는 전국에서 단

---

1) SOFA가 발효된 직후인 1969년 이래로 최대 270여 개의 미군기지가 4억여 평에 달하는 지역을 점유하였고 점차 축소를 거듭하면서 2000년대에는 100여 개의 기지가 약 7천만 평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 중 2020년 현재 반환 대상 기지 중 58개가 반환되었고 22곳이 아직 반환되고 있지 않다.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 사람들』, 의정부문화원, 2021, 36-37면; 43면.

2) 법률상 '기지촌'이라 함은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 중 경기도 내 지역"을 말한다(「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등에 관한 조례」, 2020.5.19, 제2조 2항). 정근식 외,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 경기연구원, 2020, 3면.

3) 미군기지 주변 마을을 흔히 '기지촌'으로 명명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지촌이 지닌 편향적 이미지를 넘어서기 위해 '미군기지 주변 마을'로 통칭하기로 한다.

일 시군 중에 가장 많은 미군기지 8곳이 밀집해 있으며[4] 아직도 3곳이 반환되고 있지 않아 여타의 미군기지가 소재한 지역에 비해 미군기지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연구 대상 지역인 가능동과 빼벌마을이 바로 그러한 지역에 속하며 비교적 예전 마을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기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그 중에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로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재생과 기지 활용에 대한 정책적 연구,[5] 기지촌 여성에 대한 연구,[6] 기지촌 형성과 변화를 다룬 연구,[7] 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변화와 경험・갈등을 다룬 연구,[8]

4)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 의정부』, 의정부문화원, 2020, 38면. 1955년 이후 포천, 동두천, 의정부 일대 미군기지는 DMZ 정찰 임무와 철원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당시 의정부에는 레드 클라우드(Red Cloud) 기지를 중심으로 스탠리(Stanley), 잭슨(Jackson, 1952년 건설), 에이세이욘(Essayons, 1953년, 2사단), 시어즈(Sears, 1968년), 카일(Kyle, 1953년, 2사단), 라콰디아(LaGuardia), 홀링워터(Falling Water, 1951년 건설), 인디언(Indian), 우(Woo), 조나단 윌리엄(Jonathan Williams, 1954년 7사단) 등이 있었다. 정근식 외, 앞의 글, 23면. 이러한 의정부 미군기지 주변에 기지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변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의 미군들까지 의정부 기지촌으로 몰려들 정도로 호황을 맞기도 했다.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 54면.

5) 안희숙,「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2008; 최보경, 「미군기지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사례 연구」, 『인문콘텐츠』 46, 인문콘텐츠학회, 2017; 「지역문화재생에서 '크로노토프'의 의미 연구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2016-17)〉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9.

6) 오지연,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 의정부시 송산동 기지촌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7) 강수영, 백일순, 이승욱,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역사적 변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2, 대한지리학회, 2020; 송상덕, 「미군기지촌의 재발견」,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오창은, 「1970년대 초 한국소설의 미군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8) 고정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변화 고찰: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금보운, 「주한미군과 주둔지 주변 지역사회의 관계(1964-1973년): 미군 대상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운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133, 한국사학회, 2019; 김환철, 김태복, 「미군기지 현안문제 조사 및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의정부를 중심으로」,『한국토지행정학회보』 10-1, 한국토지행정학회, 2003; 양기용, 김동성,「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3,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정충실, 「춘천, 기지촌: 1960, 70년대 캠프페이지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화」, 『한국학연구』 68, 고려대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9;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 『지역과 역사』 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장소성을 다룬 연구[9] 등이 있다. 그 외 국외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을 다룬 연구[10]도 이 연구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밖에 미군기지 주변 마을이나 기지촌에 대한 조사도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조사 보고된 지역으로는 의정부 고산동의 뺏벌마을,[11] 동두천의 턱거리마을[12]과 보산동[13]이 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 일대[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의정부 미군부대를 상대로 생계를 꾸려갔던 다양한 사람들의 구술을 담고 있는 보고서[15]가 발간되어 주민들 삶의 변화를 단편적으로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와 관련된 연구들의 특징은 2000년 이후부터 연구 성과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2004년에 타결된 미군기지 전면 재배치 협상과 관련이 있다. 즉, 대규모의 미군기지가 이전을 할 경우 반환될 기지의 활용과 주변 마을의 재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연구 등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이들 연구 중에서 차철욱은 부산 범전동 일대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의 역사적 경험을 다루었다.[16]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의 사정은 의정부 미군부대 주변 마을과도 흡사한데 이 연구에서는 미군기지의 변화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자기들의 방식"대로 수용하며 그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성이 강한 마을"[17]로 변해가는 것을 포착해 내었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

9) 송지선, 「김명인의 〈동두천〉연작시에 나타난 양가적 장소성 연구」, 『우리말 글』Vol.86, 우리말 글학회, 2020.
10) 진필수, 「미군기지와 오키나와 촌락공동체 지속과 재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a; 「군용지료 재판을 통해서 보는 오키나와 촌락공동체의 구조와 변화」,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b.
11) 의정부문화원 편, 『헬로 뺏벌』, 의정부문화원, 2020c.
12) 경기문화재단 편,『(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동두천 턱거리 : 땅과 기억 : 동두천 턱거리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2018.
13) 경기문화재단 편,『동두천 기지촌의 회상과 기록: 경기마을기록사업 시리즈 21』, 경기문화재단, 2020.
14) 부평역사박물관 편, 『(2015 학술총서)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2019 -2020 특별전 도록)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미군기지와 부평 사람들 이야기』, 부평역사박물관, 2020.
15)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 사람들』, 의정부문화원, 2021.
16) 차철욱, 앞의 글.
17) 차철욱, 앞의 글, 343면.

주변 마을민들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대응 양상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강수영 외[18]의 파주 연풍리 용주골의 역사적 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미군이 떠난 이후에도 당시 만들어진 물적 토대의 기억들이 여전히 그 지역의 현재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공간'과 사람들의 일상사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지촌의 형성과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19] 즉,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정부 지역에 있어서도 현재 미군들이 일부 잔류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미군들이 "떠난 자리"에 마을 주민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기억과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장소성'과도 관련이 있다. 송지선[20]은 동두천 보산리 기지촌을 대상으로 한 김명인의 연작시 ≪동두천≫을 중심으로 '더러운 그리움'이라는 양가적 장소성에 주목하였다. '장소성'이라는 개념은 에드워드 렐프[21]가 주창한 개념으로 미군기지 주변 마을에 규정된 '장소성'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변화를 미군기지 설립 전, 설립 후, 감축 혹은 이주 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구체적인 대응과 실천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전통적인 마을 조직 외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조직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인회, 자치회, 대책위원회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무엇보다 주민들 삶의 변화를 보다 생동감 있게 포착해 내기 위해서 현지인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과 실천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

18) 강수영 외, 앞의 글.
19) 같은 글, 144면.
20) 송지선, 앞의 글.
2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 미군기지의 설치와 지역 변화의 양상

1) 평범한 농촌에서 기지촌으로, 가능동의 사례

가능동은 현재 의정부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인접해 있다. 가능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시북면(柴北面) 가좌리(佳佐里), 어능리(魚陵里), 직동(直洞)을 합쳐서 가능리(佳陵里)로 개칭하였다가, 1956년에 2개 리로 분할되어 가능1리와 가능2리가 되었다. 가능동이라는 이름은 '가좌리'와 '어릉리'에서 한 자씩 따온 것이다. 1964년 6월 1일 동(洞) 제도가 실시되면서 가능1동과 가능2동이 되었다. 1970년 7월 1일 가능3동이 분동되었으나, 2017년 4월 3일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흥선동으로 합동하였으며[22], 2018년 9월 27일 가능1동을 가능동으로 개칭한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가능동 미군기지(캠프 레드클라우드, CRC) 인근 마을은 삼거리를 기점으로 삼각형의 도로변에 위치했던 마을들에 해당된다(그림 1). 이 지역은 1910년대만 하더라도 넓은 농경지에 삼거리를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드문드문 몇 집만 있었던 농촌 마을이었다. 이 일대에는 안골, 중간말, 앞말, 신촌, 곧은골, 솔밭거리, 가재울 등 자연마을이 분포해 있었다.[23]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곳에 미 육군 제1군 사령부가 주둔하게 된다.[24] 그러다 1953년에는 이곳에 의정부의 대표적인 미군 기지인 미 제1군단 사령부 캠프 잭슨(Camp Jackson)이 건설되었다.

---

22) 1970년 가능2동이 가능2동과 3동으로 분동되었다가 2017년 권역동제의 실시에 따라 하나의 행정동으로 흥선동(興宣洞)이 설치되었다. 「흥선동 연혁 및 유래」, 『의정부시』, https://www.ui4u.go.kr/cscportal/contents.do?mId=0316030000(2022.06.11. 검색).

23)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a, 124면. 여기에는 안골은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삼각형의 남쪽 변에 해당되는 도로 옆으로 백석천이 흐르는데 이 개천 너머 마을이 안골이다.

24) 의정부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미군 부대는 서부 전선을 담당하는 미 육군 제1군단이었다. 제1군단은 1950년 9월 13일 한국에 도착하여 낙동강 전투에 참가한 뒤 평양 탈환 작전을 비롯한 서부전선의 주요 전투에 참가한 부대였다. 전선이 교착되면서 미제1군단은 오늘날 의정부시 가능동인 가능리(佳陵里)에 군단사령부를 두었다.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의정부시사』(2): 매성·양주·의정부로의 변천,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b, 367면.

캠프 잭슨은 1957년 5월 18일 한국전쟁의 영웅인 레드 클라우드 상병의 이름을 따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25]로 개칭되었다.[26] 캠프 잭슨이 있었던 1954년 당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삼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부대 앞에는 몇몇 집들만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다(그림 2).

주민들은 의정부에서 가장 먼저 기지촌이 형성된 곳이 가능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27] 전쟁이 끝나고 미군기지가 들어서자 부대 옆에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부대 내의 막노동이나 초소 경비, 하우스 보이 등의 일자리를 위해서였다.[28] 점차 세탁소, 치킨집, 식당, 사진관, 양복점, 음식점 등의 생겨나기 시작했다. 5-60년대 당시에는 이러한 상가들은 거의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들어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상가들도 9평으로 균등 분할하여 반듯한 상가 건물로 거듭나게 된다.[29] 이처럼 1960년대 후반에는 삼거리뿐만 아니라 부대 앞에도 다수의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이 지역에 집들이 밀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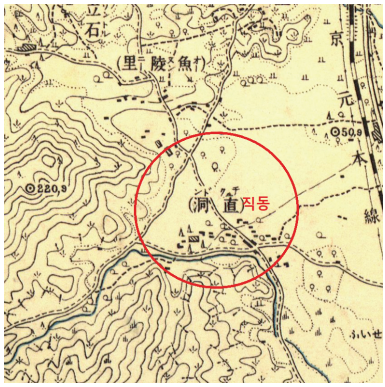
25) 레드클라우드 기지는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 있었고 현재 2사단사령부이며 의정부에서 제일 큰 기지였다. 이 기지는 1950년 11월 5일 공로수훈훈장을 받은 미쵈 레드클라우드 주니어(Mitchell Red Cloud Jr)의 이름을 따서 명명(1957. 5. 18)했으며, 한미 1군단(1971. 7. 1.-1980. 3. 14.)과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1980. 3. 14.-1992. 7. 1.), 2사단 사령부(1993-현재) 등으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곳은 1,200명의 현역 미군과 미 국방성에서 고용한 60명의 민간인, 계약직 340명을 포함해 약 1,600명이 근무하고 있고 122통신대대와 인근 10개의 기지를 관할하는 중심기지이다. 이 기지는 2018년 10월 18일 폐쇄되었다. 정근식 외, 앞의 책, 84면.

26)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14b, 369면.

27)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의 의정부』, 의정부문화원, 2020b, 93면.

28)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359면.

29) 같은 책.



〈그림 1〉 1910년대 후반 가능동 일대
(1918년 구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2〉 1954년 가능동 일대 항공 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 기지 주변에 새로 생겨난 마을, 고산동 빼벌의 사례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후문에는 빼벌[30]이라는 마을이 있다. 고산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내동면(內洞面) 고산리(高山里)·입암리(笠岩里)를 합하여 별내면(別內面) 고산리(高山里)로 개칭하였다가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고산동이 되었다.[31] 2022년 현재 고산동은 행정동으로는 송산1동에 속해 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빼벌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전주 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 묘역(고산동 산116-1번지 일대)이 있고 묘역을 관리하던 사람 외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름도 없는 두메 산골이었다고 한다. 또한, 종중 소유의 토지가

30) 고산동 빼벌마을의 명칭은 배벌, 빼벌, 뺏벌, 빼벌 등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빼벌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우선, 본래 이 마을에 배밭이 많아서 '배벌'이라 부르던 것이 지금의 빼벌이 되었다는 설(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의정부시사』(1): 의정부의 생활공간,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a. (1), 224면), 이곳에 한번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 어려워 발을 빼지 못한다는 의미의 '빼벌'이라는 설(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의정부시사』(4): 의정부의 마을과 민속,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c, 97면), 마을 인근에 '빼대' 혹은 '뺑대'라는 쑥과의 풀이 많아서 '뺏벌'이 되었다는 설(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133면)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의정부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빼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하겠다.

31) 『의정부시』, https://www.ui4u.go.kr/tour/contents.do?mId=0304060000#con_go2(2022. 06.11. 검색).

3만 3천여 제곱미터, 즉 1만여 평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32] 현지인들의 구술에 의하면,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주 이씨 집안사람들만 4가구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난민들을 이곳 빼벌에 이송시켰고 이송된 피난민들은 빼벌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33]

그런데 1918년 지도를 보면 흑석리, 즉 검은돌마을이 표기되어 있고 그 위에 집들이 드문드문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빼벌이다(그림 3). 이 빼벌의 서쪽에 미군기지가 들어선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가 된다. 공식적으로는 1955년 4월 15일에 캠프 스탠리(Camp Stanley)가 세워졌고 이 기지에도 제36공병단이 주둔하게 되었다.[34] 그러나 여기에는 그 전부터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었다. 즉, 1953년부터 헬기 부대의 텐트촌이 있었다.[35] 주민들의 구술에서도 1953년 당시에는 천막 몇 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36] 이후에 캠프 스탠리가 들어오면서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37]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인들의 구술에서는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2-4집 정도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1918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7-9채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어 당시에도 소규모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3년에 헬기 부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집들이 좀

32)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49면.
33) 같은 책, 73면.
34)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14b, 370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온 게 1951년 한국정부가 미군에 기지 공여한 뒤 1953년 정전협정 직후 7사단 11공병연대 36공병대대 13헬리콥터중대에서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1년 7사단의 철수에 따라 미 2보병사단의 항공대와 포병부대가 현 기지에 자리했다. 정근식 외, 앞의 책, 47면.
35) Bruce Richards, 「Camp Stanley」, https://brucerichards.com/army/campstanley.htm (2022. 5. 20. 검색). 주민들의 증언에는 해방 직후 미국 고문단이 빼벌 옆 밭에 천막을 치고 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군 부대가 거기에 들어와 주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72면.
36) 김○일 씨(남, 1953년생, 1953년 이주해 옴) 인터뷰, 2022.06.03. 이곳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일대의 기지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DMZ)의 확정된 후 정찰 및 순찰 임무 차원에서 확장되었다. 1955-1959년 사이에 천막 기지들이 '기지 개선사업'으로 반영구적 반원형 퀀셋트 막사로 교체되었고, 주요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정근식 외, 앞의 책, 19면.
37)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323면; Bruce Richards, 앞의 홈페이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954년 항공 사진에도 드문드문 가옥들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부친이 제대 후 이곳 빼벌로 들어왔고 1960년에 이곳에서 태어난 김○수 씨에 의하면, 부친(김○성, 1932년생)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집이 3채가 있었고 부친이 집을 지을 때는 네 번째 집이었다는 것이다. 빼벌 인근에는 정자말, 원머루, 구석말 등이 있었는데 이를 합쳐서 고산리라고 했다. 고산리의 마을회관은 정자말에 있었고 빼벌 사람들은 마을에 회의가 있으면 정자말에 가서 회의를 했다고 한다.

> 거기가 옛날에는 별내면이었어요. 의정부가 아니었어요. 별내면 양주군 고산리, 아마. 고산리 116번지라고 그랬는데 산116번지, 산 116번지.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고산동이 흑석, 거문돌 산곡동이 있고 고산동이라는 동네가 집이 한두 채밖에 없다 보니까 정자말이라는 동네하고 같이 고산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자말, 원모루, 구석말 이쪽이 다 고산동이에요. 또 거문돌에서부터 다음 동네 미군부대 다음 동네에서부터 저 그쪽 산 밑으로는 산곡동이라고 했어요. 고산동, 산곡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그때는 집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중략)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빼벌에 있는 그 땅 관리자가 마을 회의를 하면 정자말을 오셨대요. 정자말에. 우리 이제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정자말에 살았어요. 거기 마을회관이 정자말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빼벌에 있는 그분이 정자말에서 와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던 거지.[38]

이때, 정자말은 큰길 건너 빼벌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1918년 지도에서는 '정자촌'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3). 이처럼 빼벌은 정자말을 중심으로 한 고산리의 작은 마을이었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전주 이씨 묘역과 이씨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근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점차 거주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오게 된다. 즉 기지 안의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타 지역 미군기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해당 지역 미군기지가 축소 내지는 철수되자 이곳으로

38) 김○수 씨(남, 1960년생, 빼벌 출생) 인터뷰, 2011.11.16.

대거 옮겨 오게 된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주의 미군 7군단이 철수하면서 동파리, 금곡리 등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1964년경에 30여 명이 이주해 왔다고 하며 제천에서도 6-70여 명 정도가 이주해 왔다고 한다.[39] 1964년에 파주 미군부대 앞에서 장사를 하다가 부대가 의정부로 이전하자 부대를 따라서 빼벌에 왔다는 정○수 씨에 의하면 들어 올 당시에 마을에는 '열댓 가구' 정도가 있었다[40]고 하는데 이때부터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빼벌마을은 차츰 주민들이 늘고 상점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림 3〉 1910년대 후반 빼벌 일대
(1918년 구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4〉 1954년 빼벌 일대 항공 사진
(출처: 국립지리정보원)

3. 미군기지의 변화와 주민들의 대응

1) 미군기지 주변 마을의 번성과 생업의 변화

대체로 인근에 미군기지가 들어선 마을들은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음식점, 클럽 등이 생겨나고 미군기지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가능동에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기지 주변에 촌락이 점차 번성하게 되고 특히, 부대 앞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집중적으로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능동에는 교외선[41] 철도가 지나갔다. 1961년에

39)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78면.
40) 같은 책, 126면.

고양 능곡에서 출발하여 의정부 '가릉역'[42]까지 오는 노선이 개통되었고 1963년에는 서울역에서 능곡을 거쳐 의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성북, 청량리, 왕십리, 서빙고, 용산, 그리고 다시 서울역으로 가는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43] 이 교외선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송추·능곡 방면의 교역량 증대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봄·가을 행락객들을 위한 편의도 제공하였다[44]고 하니 철도를 이용하는 가능동의 유동 인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1966년 지도를 보면, 기지 앞 철로 인근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5). 그러나 근처에는 여전히 논과 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1990년 전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86년에 이주해 온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도 부대 앞 상가 주위는 논과 밭이 있었다고 한다.[45] 1972년 지도를 보아도 가능동의 삼거리 지역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미군기지 앞 마을 주변은 농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그러나 기지 주변에는 점차 부대 내 막노동이나 초소 경비, 하우스 보이 등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46] 또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도 점차 늘어나 1980년 전후에는 클럽이 10여 곳이 있었고 여성

41) 교외선은 의정부와 고양시의 능곡 사이 총연장 31.8㎞의 철도로 서울 북부 교외 지역의 여객 운송을 맡았었다. 1961년 6월 30일 능곡 - 가능 간이 1차로 개통되었다가 1963년 8월 20일에 가서야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었다. 개통 당시 능곡역의 '능'과, 의정부역의 '의'를 각각 따서 '능의선(陵議線)'이라고 불렸으며, 서울교외선이라는 명칭은 경의선·경원선·경부선 등과 연결되어 한강 이북의 서울 교외 지역 전체를 잇게 되면서 통용되었다. 이후 점차 열차 운행이 줄어들다가 2014년에는 거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2), 444면.

42) 교외선이 개통될 당시의 가능동에 있었던 '가릉역'과 현재 1호선 전철역인 '가능역'은 서로 다른 역이었다. 가릉역은 경민대학교 앞 동명빌라(가능동 585) 뒤에 있었던 역이었다고 한다. 유호명, 『(1960년생 토박이의) 의정부를 담다』, 의정부문화원, 2022, 37면. 이 가릉역은 교외선이 완전 개통된 1963년에 폐역되어 현재는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교외선이 완전 개통될 당시의 가능역은 경민대학교 앞의 가릉역이 아닌, 현재의 위치(가능동 197-1)에 새로운 역사를 신축하고 정식 영업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3) 「고양·의정부·양주시 잇는 '교외선' 2024년 재개통」, 『기호일보』, 2021. 08. 27,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022(2022. 6. 10. 검색).

44)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2), 444면.

45)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390면.

46) 같은 책, 359면.

종사자들만 200-300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47] 전술한 바와 같이 미용실, 양복점, 피자집, 환전소 등도 많아져서 그 중에 양복점은 13곳 정도가 성업 중이었다.[48] 1994년부터 2010년대 초까지도 이곳의 가게들이 무척 잘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사령부가 있어서 각 부대 군인들이 낮에 업무를 보러 왔다가 가능동의 가게에 들르기도 했고 밤에도 인근 부대 미군들이 가능동으로 몰려와서 항상 미군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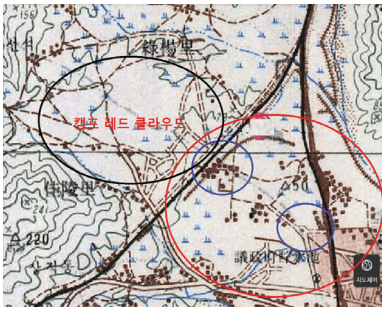
1975년에 이곳에 있던 양복점을 인수하여 새로 양복점을 열었던 정○길 씨의 경우, 1979년까지는 장사가 무척 잘 되어 직원을 20명씩 두고 살림집을 터서 만든 봉제공장에 직원이 19명이나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50] 또한, 1976년경에는 퇴역 미군들을 위한 재향군인클럽인 'veteran's club(향군클럽)'이 의정부역에서 가능동으로 이사를 와서 미군들의 본격적인 철수가 있기 전인 2010년 초까지 미군 사교 클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고 했다.[51] 향군클럽 초창기부터 지배인을 했던 주○균 씨에 의하면, 1980년경에 회원이 약 30명 정도가 되었고 미군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도 클럽에는 손님이 꽤 많았다고 한다.[52] 1986년에 이곳에서 문을 연 '가나안피자바베큐'는 당시 의정부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생긴 피자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피자집의 사장인 최○복 씨에 의하면, 장사가 한창 잘 되었을 때는 새벽 3시까지 장사를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53]

1960년에 가능동으로 시집을 온 윤○동 씨(여, 1942년생)에 따르면, 시집올 당시만 하더라도 삼거리뿐만 아니라 '군단 앞 마을'[54]도 번성해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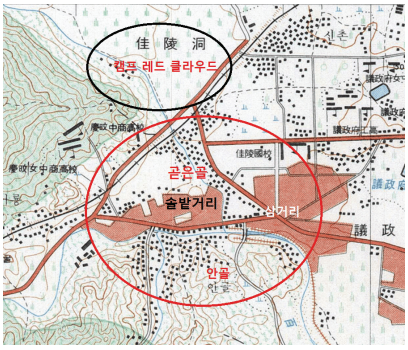
47)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의 의정부』, 의정부문화원, 2020b, 170면.
48) 같은 책, 93-95면. 부대 정문 앞에는 에스콰이어, 홍콩, 데이비드 윙, 비바 등의 상호를 붙인 양복점이 즐비하였다.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b, 183면;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360면.
49)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96면; 371면.
50) 같은 책, 442-445면.
51) 같은 책, 91-98면. 재향군인클럽은 제대군인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래 자리는 의정부역 근처에 있었던 양조장 자리였다고 한다. 같은 책, 77면.
52) 주○균 씨(남, 1941년생, 향군클럽 지배인) 인터뷰, 2021.07.24.
53)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393면.
54) 윤○동 씨는 〈그림 5〉에서 미군기지(캠프 레드 클라우드) 정문 앞에 형성된 마을(파란색 원)을 '군단 앞 마을'이라고 한다. 같은 그림의 군단 앞 마을 남쪽 파란색 원이 삼거리다. 이 삼거리에 도로가 추가로 개통되면서 현재는 '육거리'가 되었다. 2022.06.18. 인터뷰.

지금의 경민대학교 앞 교외선 철도 옆으로도 집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 주변은 논밭이나 배밭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가능동은 인근에서 부자 동네라고 했다. 남자들의 대다수가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고 가정집도 대부분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았으니 수입이 괜찮았던 것이다. 남자들은 미군기지 내에서 목수, 요리사, 경비, 태권도 강사 등을 했다.[55] 군단 앞에도 클럽이 많았지만 안골 입구에도 '텍사스 골목'이라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56]

이처럼 가능동의 미군기지 앞 마을은 1970년대 후반 무렵에서 2010년 전까지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군기지 앞 마을은 도로변에 가옥들이 밀집되었고 도로를 따라 상가들이 늘어서 있어 상가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그림 6). 이 마을에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 클럽 10여 곳, 치킨·피자집, 양복점 13여 곳, 미용실, 양장점, 월세 임대업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림 5〉 1960년대 가능동 일대
(출처: 1966년 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6〉 1970년대 초 가능동 일대
(1972년 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55) 윤○동 씨의 남편은 정식 KSC(Korean Service Corps, 한국노무단) 소속으로 미군부대 내에서 목수일을 하였다. 1960년 당시 그의 월급은 1만 1천 원이었고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던 윤○동 씨의 월급은 1만 2천 원으로 남편보다 1천 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 당시 물가가 쌀 1말에 2-3원, 버스비가 2원이었다고 한다. 2022.06.18. 인터뷰.

56) 김○순 씨(여, 가능동 출생) 2022.06.18. 인터뷰. 직동교 건너기 전 백석천 오른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현재까지도 골목과 한옥들이 남아 있어 예전 모습을 짐작케 한다.

한편, 빼벌은 캠프 스탠리의 미군들이 동두천으로 옮겨가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호황기를 맞았다.[57] 1996년 4월 기준 빼벌에는 총 600여 호에 인구는 약 1,08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58] 빼벌의 주민들은 미군과 클럽 여성들을 상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부류, 상점과 방세로 살아가는 집주인들, 클럽 주인과 클럽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류, 클럽 여성들, 블랫마킷을 목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 외부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등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다.[5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실, 치킨집, 양복점, 연탄장사, 국수장사, 식당, 커피숍 등이 있었고 사진사, 고물 수집, 방 임대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용실은 5-6곳이 있었다고 하며 세탁소는 3곳, 치킨집은 10여 곳, 양복점은 20여 곳이 있었다고 한다.[60]

빼벌의 경기가 좋아지자 이웃에 사는 주민들도 빼벌에 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야채나 반찬을 팔거나 팥죽, 떡, 송편, 찰밥, 식혜 등을 팔기도 했다. 그 외에 화장품이나 이쑤시개, 두부나 때타월 등도 판매하였다. 검은돌마을 사람들도 장작이나 불쏘시개용 솔잎 등을 팔기도 했다.[61] 한편, 남자들은 주로 부대 내의 노무단(KSC, Korean Service Corps)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부대 정문 경비, 세탁실 근무, 용역, 풀 깎는 일 등에 종사하였다.[62] 빼벌에 있었던 클럽에 대해서는 주민에 따라 13곳 혹은 22곳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클럽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400명 혹은 8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63] 빼벌에서 미군들을 상대했던 클럽 여성들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1980년에 300명 정도였고 80년대 후반에 그 숫자가 점차 줄어 1996년 7월경에는 36명 정도였다. 클럽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어 1996년에는 16개 정도였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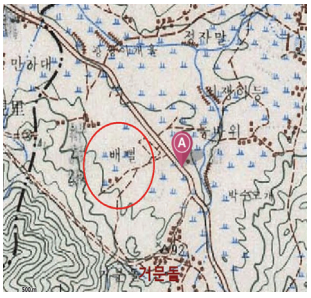
---

57)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85면.
58) 오지연, 앞의 글, 1997, 16면.
59) 같은 글.
60)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94-95면; 의정부문화원 편, 2021, 28-29면; 183면.
61)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94-97면.
62) 같은 책, 110면.
63) 이러한 차이는 주민들마다 이주해 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그 기억하는 숫자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클럽과 여성 종사자가 가장 많은 시기에는 22곳에 800명 정도였고 많이 감소한 시기에는 13곳에 400명 정도였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64) 이 통계는 성병진료소에 등록된 수치로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치이다. 따라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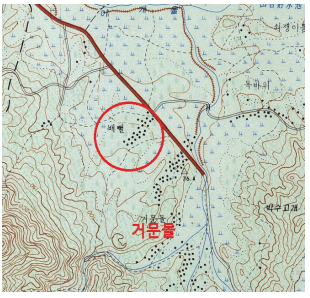
1966년 지도를 보면 '배뻘'이 표기되어 있고 가옥은 두 집 정도만 표기되어 있다(그림 7). 1972년 지도를 보면 '배뻘'에 상당히 많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1986년 지도에는 '배뻘' 입구에 의정부 보건소와 고산 진료소가 들어서 있고 마을은 시가지처럼 표시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가옥이 들어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9). 빼벌도 가능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자 동네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 거기는 이제 미군 부대가 왕성할 때 뭐가 또 있었냐면 수락산에 수영장도 있고 막 그랬어요. 산에, 그래갖고 개인이 막 돈도 받고 막 그러고 지금은 다 철거되고 없지만... 아무튼 그쪽이 건너 동네에서 보면 정말 라스베가스 같은 동네였어요. 저희는 도시락에 밑에다 계란이라도 깔고 가고 소시지라도 갖고 가는 동네고 다른 데는 그러지 못한 동네고, 참 어려운 동네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다른 데가 더 부자 동네가 되고 거기는 어려운 동네가 돼 있어요.[65]

이처럼 호황을 누렸던 빼벌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미군들이 동두천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마을 경제는 사그라들었다.[66] 2014년에는 141가구에 230명으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였다.[67]



〈그림 7〉 1960년대 후반 빼벌 일대
(1966년 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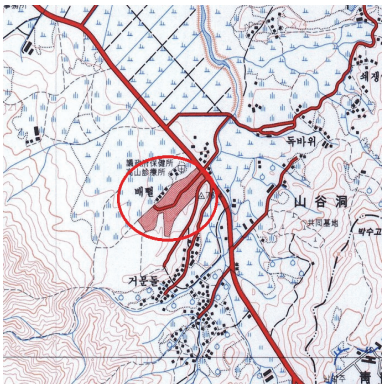
〈그림 8〉 1970년대 빼벌 일대(구지도
1972년 지도, 출처: 국립지리정보원)

병진료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 등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여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클럽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오지연, 앞의 글, 18면.

65) 김○수 씨, 앞의 인터뷰.

66)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85면.

67) 같은 책, 93면.



〈그림 9〉 1980년대 배벌 일대
(구지도 1986년 지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10〉 2022년 현재 배벌 일대 항공지도
(원본: 구글지도)

2) 주민 공동체의 생성과 지속

앞에서 살펴 본 배벌마을이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공동체 문화가 생성되었다. 즉, 1990년대까지 초상이 나면 상여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상계(喪契)'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상여는 배벌마을과 검은동마을, 산곡동이 공동으로 사용했다.[68] 과거에는 배벌의 마을 조직으로 대동회, 4H클럽, 청년회 등이 있었고 새마을금고, 양조장 등도 있었다.[69] 현재는 대동회라고 하지 않고 마을 '총회'라고 한다. 현재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우 씨에 의하면, 청년회는 30-40여 명 정도 가입되어 있었고 청년회 회원들은 마을 청소나 눈 치우기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2020년 현재는 청년들이 많이 떠나서 청년회도 축소되었다. 노인회는 구성이 되어는 있으나 여성 회원들이 많고 외지인들이 많아졌다고 한다.[70] 배벌에서는 특히 부녀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부녀회에서는 마을의 노래자랑과 경로잔치 등을 주관하였다. 2022년 현재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오복식당의 주인 오○진 씨에 의하면,

68)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99면.
69) 김○수 씨, 앞의 인터뷰.
70)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104면.

지금 부녀회원은 10여 명 정도이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71] 한편, 빼벌 클럽의 운영자들은 별도로 '홀 연합회' 혹은 '관광협회'를 결성하였다. 홀 연합회는 아직도 사무실이 있으며 연합회 명의의 땅과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72]

빼벌에서는 정초에 풍물패가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하였다. 정월 보름에는 마을에서 윷놀이대회를 하였다. 윷놀이대회는 '쌈지마당'이라는 놀이터에서 벌어졌는데 성인들이 1대 1로 맞붙어 최종 우승자를 뽑는 방식이었다. 또한 정월 대보름 밤에는 '빰대'[73]로 횃불을 만들어 횃불을 들고 달맞이도 하였다. 추석이 되면 쌈지마당에서 노래자랑이 개최되었고 농협 앞마당에서는 부녀자들의 '야유회'도 벌어졌다.[74] 무엇보다 빼벌에서 주목할 만한 마을 행사로 노래자랑 혹은 '콩쿠르 대회'가 있다. 이 행사는 1960년대에 시작해서 2010년 무렵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는데[75] 인근 마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행사이다. 특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였고 근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노래자랑을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은 1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준비하였다. 참가자들도 참가비로 5백 원-1천 원 정도를 받았고 인근의 산곡동, 고산동, 검은돌 등 이웃 주민들도 참여하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걸어 놓았다. 행사를 할 때는 국수와 막걸리 등을 준비하여 마을 어른들을 대접했다. 이 행사는 근 50여 년 정도 이어지다가 미군이 부대를 점차 떠나면서 2010년경에 중단되었다.[76]

이처럼 인근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노래자랑 대회가 빼벌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인근에 미군기지가 있고 클럽 등이 번성해

71) 같은 책, 106-107면. 오○진 씨(여, 1964년생)는 1980년대에 빼벌로 이사를 왔고 마을 초입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72) 김○수 씨, 앞의 인터뷰.
73) '빰대'는 '빼대' 혹은 '뺑대'라고도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쑥과의 풀을 말한다.
74)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287-290면.
75) 의정부문화원 편, 2020c, 292-294면. 김○수 씨는 노래자랑을 '콩쿠르 대회'라고 기억하고 있다. 김○수 씨, 앞의 인터뷰.
76)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292-296면.

있어서 대회에 필요한 무대나 기자재, 밴드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가능했다. 아래 진술은 그와 같은 정황을 말해 준다.

> 지금은 안 하지만 매년 청년회에서 가을인가 연말인가 되면 콩쿠르 대회도 좀 하고. 오래 전 일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했었죠. 그 대회도 하고 동네에서 우리 기지촌이라고 그래서 콩쿠르 대회를 한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빼벌로 다 모이는 거야, 그 주변 동네... 우리 청년회에서 콩쿠르 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선물도 주고 미군 부대 기지촌 옆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게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콩쿠르 대회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77]

다음으로는 부녀회와 청년회 등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마을 조직도 행사 진행에 한 몫을 했다. 마을 경제가 한창 좋았던 시절에는 부녀회원이 20-30여 명, 청년회원이 30-40여 명이 되었다. 청년회에서는 무대 설치와 밴드 섭외 등 실무를 맡았고 부녀회원들은 음식 장만을 맡아서 노래자랑을 준비했다.

> 청년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밴드, 무대 설치 이런 거 하고 부녀회는 그때는 뭘 했냐 음식 야간에 먹을 음식 있어요. 오뎅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육수... 하여튼 술도 좀 대접하게 빈대떡 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부녀회에서 준비하고.[78]

부녀회에서 개최하는 야유회 역시 추석날 농협 앞마당에 모여 하루 종일 음식을 술을 먹으며 노래도 부르고 놀았다고 한다. 클럽업주들이 일부 비용을 찬조해 주기도 했다.[79] 음력 10월이 되면 마을 공동의 산제사도 지냈다. 이 산제사는 수락산 '능생이' 안에서 지냈는데 유교식으로 돼지머리를 올리며 지냈다고 한다. 이 산제사는 1990년 무렵까지 지내다가 중단되었다.[80]

이처럼 빼벌에서는 10여 년 전까지도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었다. 미군들이 동두천으로 대거 이전해 갔던 1990년 중반 이후에도 10여 년이 넘게 노래자랑이나 지신밟기 등의 행사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빼벌의 상황은

77) 김○수 씨, 앞의 인터뷰.
78) 김○일 씨, 앞의 인터뷰.
79)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296면.
80) 같은 책, 324면.

일반적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해 가거나 미군들이 빠져나가면 지역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지역 자체가 해체 직전에 직면하는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빼벌에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녀회나 청년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 노래자랑이나 야유회 등을 개최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단합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준비하면서 더욱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클럽 관계자, 클럽 여성들과 일반 주민들이 섞여 살면서도 큰 갈등이나 반목이 없었던 것도 배경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클럽이나 상점, 식당 사이에 마을 주민들이 사는 일반 주택이 함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거주민들의 공간과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공간이 구분되지 않고 한 데 얽혀 있는 것이다.[81] 이러한 마을 형성의 특징은 클럽 여성들과 마을 부녀자들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82] 가능동의 경우처럼 도로를 따라 클럽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빼벌이라는 기존 마을 공간에 다양한 생업 공간과 생활 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서로 간에 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지가 커졌던 것을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과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사용했으며 TV도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특히, 수도는 원래 자가 펌프를 사용하다 공동 취수 시설을 만들고 마을 자체로 수도사업소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생활을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다.[83]

---

81)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4), 100면.

82) 이들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에 의해 '먹고 살 수 있는' 일종의 공생 관계였다. 비교적 젊은 20대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또래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은 거의 상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30대 이상 여성들은 서로 경조사가 있을 때 동네 아줌마들과 같이 돕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는 등 상부상조의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다. 밤에는 화투방에 모여 화투를 치고, 술도 마셨다.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4), 100면. 실제 클럽 여성들 중에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 편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오지연, 앞의 글, 16면.

83)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공유자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 발전기도 개인이 운영하면서 전기료를 받았고 공동 안테나 역시 가구당 500원의 수신료를 받았다. 또한, 마을의 수도사업소에서는 집집마다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 요금을 받는다.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이처럼 빼벌마을은 몇몇 집으로 출발한 마을이 점차 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끈끈한 협력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동네는 참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이 있고 이웃지간이 정이 있고 그렇게 살았지. 외지인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세네 집 밖에 없었는데 서서히 사람들이 그리웠던 동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모이다 보니까 먼 친척보다 나은 그런 것이지.[84]

위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마을 초창기부터 함께 고생했던 주민들 간에는 인간적인 정과 서로에 대한 의지가 돈독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몇 집이 없었던 빼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열악한 생활 기반을 함께 일구어나가는 과정에서 빼벌마을의 이러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주민들 모두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 주민들과 클럽 관계자들, 즉 클럽 업주들이나 클럽의 여성들과의 경계는 분명 존재했다. 당시에 이러한 인식을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읽을 수가 있다.

>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위에 홀 집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선을 그려놓고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홀이 몇 개 있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아래쪽에, 원래는 정문이 아래쪽에 원래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위로 정문이 맨 끝에 올라갔어요. 사실 이쪽이 후문이라고 그래요. 정문은 교도소에 있는 데가 정문이라고 해요. 후문이 아래쪽에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꼭대기 산지 쪽으로 올라왔어요. 아래 큰 도로 쪽에 가깝게 있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조금 이제 사춘기 정도 될 중고등학교 할 때쯤 되니까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춘기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른들이 그걸로 못 올라가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주변만 많이 본 거죠.[85]

2021, 28면. 이 수도사업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84) 김○일 씨,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345-346면.
85) 김○수 씨, 앞의 인터뷰.

위의 제보자의 부친이 인근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빼벌에 집이 있었지만 어른들은 마을 초입 일반 주거지와 윗동네인 '홀 집', 즉 클럽가와는 경계를 지었던 것이다. 실제 마을의 대소사나 노래자랑 등 행사는 주로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된 것이고 클럽 운영자들과 클럽의 여성들은 찬조나 대회 출전 등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빼벌마을은 일반적으로 '기지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마을의 운영과 주요 행사들은 일반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클럽 관계자의 참여나 역할은 제한적이었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능동은 빼벌에 비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가능동은 1960-70년대에 삼거리를 중심으로 이미 미군기지 앞까지 상가와 주거가 밀집하게 되면서 빼벌에서 보이는 마을 조직들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소멸내지는 교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에 가능동으로 시집온 윤○동 씨는 1961년부터 약 1년간 부역과 야경[86]을 나갔다고 한다.

> 쟤 임신해가지고 뭐야, 부역이라 해갖고 동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씩, 한 가정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제 나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쟤 임신해갖고 내가 이제 밤에 나갈 때는 이제 밤에 야경 노는 거 있었어요. 딱딱 치면서, 야경도... 그래갖고 야경도 돌고 또 부역이라 해갖고 이제 낮에 나가는 거 부역이라고 낮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뭐를 했냐? 이제 산에 가서 나무도 심고 그랬어요. 개울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그냥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기 그 상직동이라는 데까지 올라가서 내가 제 임신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고 그랬어요.[87]

가능동 주민들은 각 호마다 의무적으로 부역과 야경을 수행해야 했다. 만약 빠지게 되면 사람을 사서 보충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86) 야경꾼(야경원)은 일제강점기부터 1950-60년대 동네마다 자체적으로 방범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도 야경꾼 관련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夜警軍(야경군)으로變裝(변장)코 市內(시내)를橫行強取(횡행절취)」, 『조선일보』, 1935.12.11.

87) 윤○동 씨의 남편이 미군부대 일을 나가야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부역과 야경에 차출되어야 했다고 한다. 윤○동 씨의 경우, 여성으로만 2인 1조를 구성하여 밤12시부터 통금이 해제되는 새벽까지 동네를 2-3차례 돌았다고 한다. 윤○동 씨는 본인이 살았던 곧은골마을을 돌았는데 1달에 1번 꼴로 순서가 돌아왔다고 한다. 윤○동 씨, 앞의 인터뷰.

1960년 전후에 가능동에서는 마을 차원에서 부역 작업과 야경 돌기를 조직해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어떠한 마을 공동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웠다. 다만, 1986년에 이곳 미군기지 앞 마을에 피자집을 연 최○복 씨에 의하면, 현재까지 본토박이 2세들이 모여서 조직한 '구군단친목회'와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조직한 '홍운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88]

가능동 미군부대에서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과 봄. 가을에 부대 차원에서 축제를 열었고 이때 주민들은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부대 안에 들어가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89] 이처럼 가능동의 미군부대는 주민들과 교류하고 개방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그러다가 이곳 미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02년 발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이다. 당시에 이 부대 앞에서 반미 시위가 많이 벌어지면서 부대의 담도 철조망에서 블록담으로 전면 교체되는 등[90] 미군부대와 지역과의 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

4. 미군기지 철수에 따른 지역의 위기와 주민들의 실천

1) 지역 공동화와 생업의 위기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 상권과 생활이 번성했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이전 등으로 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정부지역에서도 미군기지가 철수하면서 지역사회에 급격한

88) 최○복 씨(남, 1954년생) 인터뷰, 2021년 7월 24일. 최○복 씨에 의하면 '홍운회(紅雲會)'라는 명칭은 가능동에 있었던 미군부대인 '레드 클라우드(Red Cloud)'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89) 이때는 미군 중대별로 음식을 팔아 수익금은 중대별 회식 자금으로 사용했다. 축제가 열리면 인형 맞히기, 활쏘기, 물병 터뜨리기 등의 게임도 벌어졌다. 저녁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도 펼쳐졌다. 독립기념일에는 불꽃놀이도 했다.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 사람들』, 의정부문화원, 2021, 373면. 이처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부대를 개방하고 축제를 여는 행사들은 다른 미군부대에서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한은 "어느 지역이든 미군기지는 1년에 한두번 씩 사나흘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한미 친목 축제'니 '한미 친선 페스티발'이나 하는 이름의 행사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60면.

90) 같은 책, 374-375면.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런데 의정부지역에서 미군의 철수는 일순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빼벌의 캠프 스탠리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 동두천으로 1차 병력 이동이 있었고 2차는 2006년에 평택으로 대규모의 병력 이동이 있었다. 2014년에는 포병여단 본부와 화학대대만 남고 또다시 3차 병력 이동이 있었고 2018년에는 전 병력이 평택으로 이동하고 결국 폐쇄되었다.[91]

이처럼 빼벌은 1953년부터 2018년까지 65년 동안 미군기지와 떼놓을 수 없는 곳이며 초기 미군들이 300명에서 최대 2,800명으로 증가해 붐비던 곳[92] 이었지만 약 1990년대부터 3차에 걸쳐 병력이 빠져나가면서 지역도 쇠락을 길을 걷게 된다. 2020년에는 빼벌에는 마을 건물 130여 채에 500여 명이 거주[93]했다고 하나 2022년 현재는 490여 명[94] 정도에 본토인은 70-80가구[95] 정도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림 11〉 폐쇄된 캠프 스탠리의 후문



〈그림 12〉 대부분 문을 닫은 빼벌마을의 상가들

9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캠프 스탠리의 포병사령부가 1988년 1기갑전투여단 예하로 편입되었다가 2006년 501지원여단 예하 항공부대(2비행단 194전투지원대대), 498전투지원대대, 46수송중대, 61정비중대, 305병참중대, 168의료중대, 304통신대대, 15한국노무중대, 55헌병중대가 평택 험프리 기지로 이동하고 2014년 포병여단 본부와 23화학대대만 남았다가 2018년 모두 험프리 기지로 이동해 폐쇄되고 말았다. 정근식 외, 앞의 책, 47-48면.

92) 같은 책, 48면.

93) 정근식 외, 앞의 책, 51면.

94) 「도시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47억 원 투입」. 『문화일보』, 2022.03.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16MW144242462110(2022. 06. 11. 검색).

95) 김○일씨, 앞의 인터뷰.

빼벌의 주민들은 미군들이 동두천으로 대거 옮겨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이곳의 경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고 한다.[96]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2006년 미군의 평택 이전 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이다.[97] 그런데 빼벌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침체도 큰 문제였지만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토지 분쟁으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 빼벌의 토지 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022년 현재 빼벌에 남아 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고령층이 많으며 세를 주고 외부에 나가 사는 주민들도 많다. 또한,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이 많은 것도 지금의 실정이다.[98] 마을에서 영업을 했던 대부분의 상점과 클럽 등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 입구 쪽에 몇몇 식당 등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건물과 집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세를 놓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99]

한편, 가능동의 경우는 빼벌보다는 좀 늦은 2010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가능동에 있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미 제2사단사령부가 최근까지 존치되어 있어서 2010년까지도 지역 상권이 번성했던 곳이다. 현지인들은 미2사단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100] 빼벌과 마찬가지로 미군부대 앞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즐비했던 클럽을 비롯하여 치킨.피자집, 양복점, 미용실, 양장점 등은

96)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0c, 85면.
97)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4), 2014c, 102면.
98) 김○주 작가, 2021. 7. 10. ; 2022. 6. 27, 인터뷰. 김○주 작가는 빼벌에서 2019년부터 빼벌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491명의 주민이 사는 이 마을은 상태가 불량한 도로가 전체의 34.8%이고, 노후주택 93.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2.8% 등 주거취약지역으로 손꼽힌다. 「도시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47억 원 투입」. 『문화일보』, 2022.03.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1601MW144242462110(2022. 06. 11. 검색).
99)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클럽, 치킨집, 양복점 등은 문을 닫았고 클럽의 여성들이 지내던 집이나 방들은 비게 되었다. 과거에도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한 편이었고 지금은 더욱 저렴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무속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2021년 현재 무속인이 영업을 하는 곳이 6-8곳 정도로 늘었다. 의정부문화원 편, 앞의 책, 2021, 326-327면.
100) 같은 책, 98면.

2022년 대부분 문은 닫았다. 현재는 '향군클럽'과 '가나안피자집' 정도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가능동의 경우도 몇 번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전까지 가능동의 상권이 번성하다가 1970년대 초에 급격한 침체기를 겪었다. 이는 1971년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2만 명 철수와 이로 인한 부대 재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01] 가능동에서 태어나서 197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다닌 김○순 씨와 1960년에 가능동으로 시집 온 그의 모친 윤○동 씨는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

조사자) 이제 미군 부대도 이제 남자들도 다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어찌 됐든 상권이 막 한창 잘 됐을 때가 한 몇 년도쯤 됐을까요? 초등학교?
김○순 씨) 내 기억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윤○동 씨) 중학교 때까지는 색시들이 많이 없어졌지. 그래 근데 초등학교 때는 색시들이 많았지. 엄청 많았어. (중략)
조사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참 막 흥청흥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되면 여기가 확 죽었나요?
김○순 씨) 그렇죠.
조사자) 그때 이제 죽은 게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나요? 부대 미군들이?
윤○동 씨) 미군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색시들이 많이 줄었죠.

이처럼 가능동은 1971년에 있었던 주한미군 감축에 1차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차츰 호황을 누렸지만 2010년 이후에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2년 현재까지 향군클럽을 지키고 있는 주○균 씨에 의하면, 2013년부터 미군들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떠났어. 이 사람들이 2013년도부터 슬슬 빠졌어요. 그리고 이 그때 마지막 파티를 여기서 했습니다. (중략) 그래가지고 나한테 박수도 치고 또 모든 걸 다 주고 갔어요. 그냥 싹 다. 자기네들이 구해놓은 거 부대에서 가져오고 이 의자들도 부대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돈 이제 이 테이블도 사놓고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어떤 사람은 오백 불, 천 불씩도 내놔요. 자기 아버지 생각해서... (중략) 그때부터

101) 의정부문화원 편, 『미군부대 속 의정부』, 의정부문화원, 2020, 31-32면.

슬슬 빠졌습니다. 혼자 제가 이걸 8년을 운영을 했어요. 손님도 없고...[102]

이처럼 가능동의 미군부대는 2018년에 공식 폐쇄되었지만 미군들의 이동은 그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기는 2010년 이후이며 2013년경에는 대부분이 빠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군들이 빠져나간 가능동의 상권은 급속하게 사그라들었고 주○균 씨처럼 한동안은 운영을 계속한 곳도 있었지만 점차 상점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림 13〉 군단 앞 거리에 있는 향군클럽



〈그림 14〉 폐쇄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2)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생활 개선의 노력

고산동의 배벌마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이 급속한 변화를 맞았지만 더 큰 사건은 전주 이씨 종중과 얽힌 20여년 간의 토지 분쟁이었다. 이 토지 분쟁은 배벌 인근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배벌로 모여든 이주민들이 전주 이씨 종중 소유의 토지, 즉 산116번지 일대에 집을 짓고 살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토지 임대료가 그리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지역이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가와 재산세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종중 측에서도 토지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갈등이 증폭되자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2003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매년 계약을 갱신할 것과 무단으로

102) 주○균 씨, 앞의 인터뷰.

점거하고 있는 건물은 철거 후 원상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103] 그 이후 2009년에도 임대료 청구 및 건물 철거 소송이 제기[104]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2011년에 '고산동 뺏벌지구 대책위'를 조직하고 전국철거민협의회에 가입[105]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106]

이후 의정부시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다가 2012년 11월에 주민들과 의정부시는 '뺏벌마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전격 합의하게 된다.[107] 그런데 2013년에 '빼벌발전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후부터는 이 빼벌발전협의회의 주도로 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조직이 이원화된 데에는 2012년 11월 합의 이후에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생기면서 원래 있었던 전철협 뺏벌대책위와는 별도로 빼벌발전협의회를 조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아래 기사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 뺏벌발전위원회 김모(44) 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이면 주민들이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할 처지다. 지금까지 주민들도 **뺏벌발전위원회와 전철협(전국철거민협회 뺏벌대책위원회) 둘로 갈라졌으나** 이젠 마을주민 1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뭉쳤다. 뺏벌발전위원회의 요구는 종중토지 매입이고, 전철협은 이주대책 수립이다. (생략) "[108]

---

103) 『경원일보』, 2019.04.16., http://k1ilbo.com/quick/show.asp?idx=70697(2022. 06. 11. 검색).

104) 「의정부시, 빼벌마을 공유토지분할 완료」, 『브레이크뉴스』, 2021.04.08., https://www.breaknews.com/798224(2022. 06. 11. 검색).

105) 『전국철거민협의회』, 2011.04.21, https://cafe.daum.net/pw1989/BhxS/117?q=%EA%B3%A0%EC%82%B0%EB%8F%99+%EC%A0%84%EC%B2%A0%ED%98%91&re=1(2022. 06. 11. 검색).

106) 2011년 11월에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130여 가구가 이씨 종중의 토지 제3자 경매로 처분되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뺏벌대책위는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 '뺏벌' 주민 집회, "우리도 생존 할 권리가 있다"」, 『경원일보』, 2011.11.13.,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8139(2022. 06. 11. 검색).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사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하였다. 「전철협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뺏벌 이주대책위원회, 서울·의정부 규탄집회」, 『경원일보』, 2011.12.06.,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8354(2022. 06. 11. 검색).

107) 「의정부 뺏벌마을 문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 실마리 푼다」, 『경원일보』, 2012.11.28.,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2030(2022. 06. 11. 검색).

108) 「뺏벌 절반 경매 위기, 의정부시 발벗고 나서」, 『의정부뉴스』, 2015.01.04., http://www.uj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2022. 06. 11. 검색).

이처럼 한때 조직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꾸준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109]



〈그림 15〉 토지 분쟁 투쟁의 기록을 남겨 놓은 모습



〈그림 16〉 토지 분쟁 당시 사용했던 현수막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는 토지 불하에 필요한 토지 감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차로 토지 감정이 실시되고 2차로 쌍방이 토지 감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양측의 토지 감정가의 평균을 내어 평당 205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다.[110] 2022년 현재까지 주민들 중에 20여 가구 정도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예전처럼 임대료를 내고 있다.[111] 전술했던 20여년 간의 토지

109) 빼벌발전협의회는 2015년 5월 종중 측과 토지 불하 조건 및 임대료 조정과 이주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종중에서는 묘역 관리용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불하할 수 있으나 그 전에 묘지 관리용 부지에 살고 있는 40가구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의정부 빼벌마을 주민들 불만 심화」, 『산경일보』, 2015.05.12.,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97(2022. 06. 11. 검색). 또한, 2016년 11월에는 빼벌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미군 헬기 소음 및 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빼벌마을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정부 빼벌발전협의회 '빼벌마을 복합문화창조도시에 편입해 달라'", 『경기북부포커스』, 2016.11.22., http://kbfocus.thesome.com/read.htm?vtype=pc&ns_id=22698(2022. 06. 11. 검색).

110) 2019년 4월에 드디어 빼벌발전협의회에서는 평당 205만 원으로 매각하되, 종중 측에 계약금·중도금까지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1년 후 2020년 6월에 잔금 50%를 입금해야 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의정부시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제작하였고 2021년 4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경원일보』, 2019.04.16., http://k1ilbo.com/quick/show.asp?idx=70697(2022. 06. 11. 검색).

111) 김○일 씨, 앞의 인터뷰, 2021. 7. 17. 빼벌 마을에 남아 있는 한 주민(인적사항 미공개 요청)의 증언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토지 임대료가 평당 4만 5천 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토지 임대료가 이렇게 오르자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30% 정도는 건물을 팔고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분쟁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빼벌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외에 빼벌에서 행해졌던 주민들 삶의 개선과 권익 보호 활동의 하나로 두레방 활동을 꼽을 수 있다.[112] 두레방에서는 클럽 여성들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 바 있다. 즉, 2008년 1월 23일 두레방이 주최가 되어 스탠리 기지 반환에 따른 지역주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지 반환과 개발을 이끈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빼벌의 개발 방향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부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113] 이렇게 두레방이 미군기지 전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지촌 여성들 때문"이다. 즉, "기지촌 여성들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114] 그 외에 무료 한방 진료와 치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때는 빼벌에 주거하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115] 이처럼 두레방은 이곳 클럽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는 하지만 클럽 여성들 역시 당시 주민들의 일원이었고 현재까지도 빼벌에 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권익과 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112) 과거 클럽 여성들이 중심이 된 '민들레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레방'이라는 단체로 바뀌었다. 두레방은 1986년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소속의 문혜림 선생이 처음 두레방이라는 이름으로 가능동에 사무실을 열었다가 1990년에 빼벌(고산동 송산로 999번길 15)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의정부시사』(6), 역사 향기 깃든 의정부,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d, 325면. 현재 두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과거 성병 진료소였다. 「유영님 두레방 원장 "기지촌 성 착취 시스템, 국가 나서 뿌리뽑아야"」, 『파이낸셜뉴스』, 2017.02.20., https://www.fnnews.com/news/201702201244048437(2022. 06. 11. 검색). 1986년 지도에서 보이는 '고산진료소'가 당시 성병 진료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113) 「스탠리 기지 반환을 따른 지역주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두레방, 2008년 1월 23일,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자치센터.

114) 박수미, 「기지촌 여성들의 인간화를 위한 선교교육의 과제: 두레방 운영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8면. 두레방에서는 본래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표현예술심리치료, 기지촌 체험 활동 지원, 출판 및 다큐멘터리 제작, 기지촌 여성들이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박수미, 같은 글, 33-38면.

115) 박○미 씨(전 두레방 간사) 인터뷰, 2022, 06. 03.

〈표 1〉 고산동 뺏벌마을 토지 분쟁 관련 활동 내역

일시	주요 사건	경과	주요 단체 / 인물	출처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종중에서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토지 임대료 가격 2배 인상 후 갈등 시작	전주 이씨 종중	포에버뉴스, 2021. 04. 08
2003년	임대료 분쟁에 따른 대법원 판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매1년 갱신 및 건물 철거 후 원상 복귀 판결		경원일보, 2019.04.16.
2008년 1월 23일	스탠리 기지 반환에 따른 지역주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지 반환과 개발을 이끈 외국 사례 소개 등	두레방 주최, 주민대표 3인, 의정부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참여	의정부포커스, 2008.1.24.; 공청회 자료집
2009년	임대료 청구 및 건물 철거 소송	종중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후 주민들과 갈등 후 소송 제기	전주 이씨 종중	브레이크뉴스, 2021. 04. 08
2011년 4월	의정부고산동뺏벌지구 대책위 전철협 가입	고산동뺏벌지구대책위의 전국철거민협의회 가입	-	전국철거민협의회 홈페이지, 2011.04.21.
2011년 11월 13일	뺏벌 기지촌 할머니 구명 집회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130여 가구가 이씨 종중의 토지 제3자 경매로 처분되면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마을 입구에서 집회	전철협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 뺏벌 대책위원회	경원일보, 2011.11.13.
2011년 12월 1일	뺏벌 기지촌 할머니 구명 촉구 규탄 서울 및 의정부시청 집회	서울 종로구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앞과 이어 의정부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	전철협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 뺏벌 대책위원회	경원일보, 12.06.
2012년 11월 28일	의정부 뺏벌마을 문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합의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소속 이동기 대책위원장과 주민 20여명은 안병용 시장의 요청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뺏벌마을 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 전격 합의함	전철협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 뺏벌 대책위원회, 의정부시장	경원일보, 2012.11.28.
2013년	빼벌발전협의회 구성	전주 이씨 종중을 수시로 방문하여 토지 매각을 요청		경원일보, 2019.04.16.

2015년 5월 7일	빼벌발전협의회 회의	토지 불하 조건 및 임대료 조정 협의, 이주 대책 회의 결과 종중에서는 묘역 관리용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불하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확인	주민, 종중, 시의원, 시 공무원, 변호사 등	산경일보, 2015.05.12.
2016년 11월 21일	미군 헬기 소음 및 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빼벌마을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시와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복합창조도시에 편입해주고 도서관 등 문화시설 설립과 미군 헬기 소음 피해 등 공동화 현상 대책 등을 촉구	최희순 위원장 주관	경기북부포커스, 2016.11.22.
2018년 6월	토지 감정 평가	6군데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		경원일보, 2019.04.16.
2018년 12월 20일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하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빼벌마을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향이 제시됨	경기도, 제3야전군사령부 관계자, 의정부시장 등	파이낸셜뉴스, 2019.01.14.
2019년 1월	쌍방 감정 평가	평당 205만 원 합의		경원일보, 2019.04.16.
2019년 4월	토지 매각 결정 발표	빼벌발전협의회는 평당 205만 원으로 매각하되, 계약금・중도금까지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1년 후 2020년 6월에 잔금 50%를 입금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	빼벌발전협의회	경원일보, 2019.04.16.
2020년 12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적용	개인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제작	의정부시	경원일보, 2019.04.16.
2021년 4월	공유 토지 분할 등기 완료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등기까지 완료함	의정부시	경원일보, 2019.04.16.

3) 지역 재생의 문화적 실천과 장소성의 탈각, 혹은 역전

가능동과 빼벌마을은 미군기지 이전 이후에 상권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지역이 침체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116]들을 전개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가능동의 경우는

116) 여기서 '문화적 실천'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특정한 문화를 선택하고 이를 재해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문화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최운희・김세준, 「민속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제주성읍민속마을 사례」, 『횡단인문학』 8, 숙명여대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278-279면.

지역에서 활동하던 8개 단체가 연합하여 '흥선동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2021년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한 "2021년 마을종합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었다.[117] '흥선동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가능동 곧은골 마을 출신의 김○순 씨에 의하면, 2021에는 공동체 모임의 공간 조성을 완료했고 2022년에도 생활 체조, 야외 영화 상영, 소모임 지원 사업, 마을 축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118] 그런데 '흥선동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산하의 8개 단체들은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던 단체들이다. 특히, 매년 김장과 고추장 나누기, 추석 송편 나눔 행사 등 지역 주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지역 청년들과 함께 향군클럽 문화 프로그램이나 '공유냉장고' 등 지역주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스무살이협동조합 등의 활동들이 주목된다.[119] 또한, 2021년에 의정부 문화거점공간으로 향군클럽이 선정되면서 향군클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120]

한편, 빼벌마을은 토지 분쟁과 관련된 일련의 투쟁을 거치고 일정 정도의 결과가 도출되면서 현재는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분위기이다. 다만,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재개발을 원하는 측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 환경 개선을 원하는 측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 활성화나

117) 「2021년 마을종합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 공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09&type=result&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마을종합지원사업&menuLevel=2&menuNo=78(2022. 06. 10. 검색). 이 8개 단체는 흥선동 언니네, 흥선 새마을부녀회, 흥선 바르게살기 위원회, 흥선 청소년지도협의회, 흥선동 주민자치회, 흥선노인복지관, 엄마샘 아뜰리에 품앗이, 스무살이협동조합 등이다. 『의정부시 공식 블러그』, https://blog.naver.com/hope_city/222767155649(2022. 06. 02. 검색).

118) 김○순 씨, 앞의 인터뷰, 2022.06.18.

119) 『의정부시 공식 블러그』, https://blog.naver.com/hope_city(2022. 06. 12. 검색).

120) 「의정부시, 문화도시 거점공간 활성화로 문화를 들-썩이다」, 『경기도정신문』, 2021.08.05.,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2(2022. 06. 11. 검색). 2022년에는 경기도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억 원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사업비 17억 8천여 만 원을 들여 향군클럽을 리모델링하고 일대 1천 86㎡에 근현대 생활문화 및 아카이브 전시관, 마을 기록자 동아리실, 다목적 문화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의정부 美향군클럽 일대 근현대사 생활문화공간 조성」, 『경기일보』, 2022.03.06., http://www.kyeonggi.com/2401984(2022. 06. 11. 검색).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들은 후자인 경우이다. 2022년에는 배벌마을이 대통령 지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2년 도시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에 선정됐다.[121] 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 간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동네가 재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여기서 눌러 그냥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걸 다 팔아야 된다 여기 다 여기 딴 게,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 여러 저기가 많으니까 그냥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게 건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생략) 우리 동네 46억을 올해 땄어요. 이거를, 도에서 땄는데 내년부터 이제 그 공사가 이제 이제 설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재개발 안 된다 이거야.[122]

배벌마을에는 가능동 향군클럽과 함께 '㎳㎳(빼벌)보관소'[123]가 문화거점 공간으로 선정되었다. 주민들은 배벌보관소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전술한 새뜰마을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지속과 활성화에 대한 문화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가능동과 배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화적 실천들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지촌'이라는 장소성을 탈각하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즉, 과거 '기지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실천하면서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마을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배벌의 주민들은 마을이 "인심 좋고 공기 좋은" 마을이며 '기지촌'이

121) 국토부와 도, 시 등은 2025년까지 47억 원을 들여 배벌마을에 생활・위생 인프라 시설 확충, 안전시설 개량, 빈 집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도시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47억 원 투입」. 『문화일보』, 2022.03.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16MW1442424621l0(2022. 06. 11. 검색).

122) 김○일, 앞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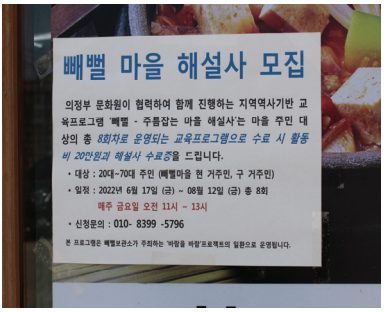
123) 고산동 〈㎳㎳(빼벌)보관소〉는 배벌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7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문을 열었다. 낯선 이방인들이었지만 힘든 시기를 지내 온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문화도시 거점공간으로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당시의 미군전용 바(Bar) '힐사이드'를 시민들과 고치고 보수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누구나 활동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의정부시, 문화도시 거점공간 활성화로 문화를 들-썩이다」, 『경기도정신문』, 2021.08.05.,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2(2022. 06. 11. 검색).

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모두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빼벌이 과거보다 쇠락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물류창고’ 등이 들어서면서 “밤이고 낮이고 아주 그냥 차들이 엄청 댕”기는 이웃 마을들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다는 식으로 현실은 역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역전은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인해 쇠락해가는 마을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문화적 실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민 1: 지금도 옛날, 오래된 사람들은 잘 만나요. 그때는 인심 좋고... 진짜 여기 이 동네 인심도 좋았어요. (생략)
주민 2: 인심 좋았죠. 공기 좋고, 정말 공기 좋아요.
주민 1: 지금 거문돌보다 여기가 더 나. 왜냐면 거문돌은 거기는 지금 뭐야 물류창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아주 그냥 차들이 엄청 댕겨. 말도 못해.
조사자: 그런데 이제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미군이 있고 또 이제 클럽이 있고 아가씨들이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주민 1: 에이 그거는 외부 사람들 생각이고, 여기 여기에 나와서 또 학교 좋은데 가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동네가 그렇게 보는 눈이 잘못된 거지, 뭐 기지촌이라고 해서 뭐 애들이 다 나쁘고 그런가, 뭐.
주민 2: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124]



〈그림 17〉 2022년 빼벌마을 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



〈그림 18〉 빼벌마을 해설사 모집 안내문

124) 주민1: 김○일 씨, 주민2: 오○진 씨, 2022.06.03. 인터뷰.

한편, 가능동에서도 활발하게 도시 재생과 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이 변하는 것에 아쉬움도 있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도 안고 있다. 가능동에서 태어나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순 대표는 최근 마을의 변화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그 터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이 동네가 저의 어떤 바운더리고 평생을 그곳에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것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곳이라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보면 고향 쪽으로 머리를 올리고 뭐 두고서 죽는다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막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천사 이렇게 휙휙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지만 새로운 물결도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125]

이처럼 미군기지가 폐쇄된 가능동과 빼벌에는 아직도 지역에 남아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다. 남아 있는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 왔고 현재도 살고 있는 "인심 좋"고 "공기 좋"은 삶의 터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지촌'으로 명명된 과거의 장소성을 탈각하고 도시 재생과 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능동과 고산동 빼벌마을을 중심으로 미군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역동적인 삶의 변화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능동에는 1953년부터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평범했던 농촌 마을이 기지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미 부대 앞에서부터

125) 김○순 씨, 앞의 인터뷰.

삼거리까지 집들이 밀집되었고 1970년대에는 상가거리가 형성되었다. 빼벌은 원래 2-4채 정도의 집만 있었던 곳이었지만 1953년부터 인근에 미군기지가 들어서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을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가능동은 넓은 평지와 삼거리 마을을 중심으로 상가거리가 형성되었던 것에 비해 빼벌은 협소한 구릉을 중심으로 마을이 거의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미군기지가 자리를 잡고 미군들이나 부대를 상대로 한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자 상권이 번성하고 생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나 상점, 음식점, 양복점뿐만 아니라 클럽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실, 방 임대업 등도 늘어났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미군기지 내에서 경비, 세탁, 요리사 등 노무자 생활을 했다. 가능동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전성기를 누렸고 빼벌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까지 호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가능동과 빼벌은 이웃한 다른 마을에 비해 부자 마을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클럽의 수가 10-20여 곳, 클럽 여성들도 300-800여 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지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미군기지로 인해 급격하게 마을 혹은 상가거리가 형성되는 와중에도 나름대로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빼벌에서는 초상계나 대동계 등의 전통적인 마을 조직이 있었으며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활동도 활발했다. 특히, 부녀회와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노래자랑 행사는 인근 마을주민들까지 참여했고 5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당시 빼벌 마을 주민들간의 공동체성과 협력적 관계를 잘 알게 해주는 사례이다. 가능동의 경우는 당시 구체적인 마을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1960년 전후 부역이나 야경 활동 등은 주민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본토박이 2세들로 구성된 '구군단친목회'나 상인들의 친목 모임인 '홍운회' 등이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가능동과 빼벌에 있었던 미군기지가 폐쇄되면서 이들 마을의 경제는 급격하게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마을을 떠났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주민들은 지역의 재생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빼벌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20여 년간 지속된 토지 분쟁을 극복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능동의 경우도 여러 주민 자치 단체들이 협력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마을들은 과거 '기지촌'으로 통칭되면서 '양색씨', '클럽', '미군' 등 일률적이면서 단편적인 장소성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기지촌이라는 장소성으로 인해 실제 '기지촌'의 주민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실천과 문화적 활동, 공동체 조직 등이 간과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의정부의 두 '기지촌' 마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주민들은 나름의 공동체 조직과 문화를 생성, 지속하고 있었고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마을을 재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퇴락한 상가들과 빛바랜 영문 간판들, 인적 드문 골목과 빈집들... 겉으로 드러난 미군기지 인근 마을들의 풍경들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곳들은 사람이 살았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곳이다. 이곳 주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양태를 살피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미군기지 인근 마을의 재생과 "새로운 물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 참고문헌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등에 관한 조례」, 2020.5.19, 제2조 2항).
「스탠리 기지 반환을 따른 지역주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두레방, 2008년 1월 23일,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자치센터.

강수영, 백일순, 이승욱,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역사적 변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2, 대한지리학회, 2020.
경기문화재단 편, 『(2017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동두천 턱거리 : 땅과 기억 : 동두천 턱거리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2018.
_____, 『동두천 기지촌의 회상과 기록: 경기마을기록사업 시리즈 21』, 경기문화재단, 2020.
고정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변화 고찰: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금보운, 「주한미군과 주둔지 주변 지역사회의 관계(1964-1973년): 미군 대상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운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133, 한국사학회, 2019.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김환철, 김태복, 「미군기지 현안문제 조사 및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0-1, 한국토지행정학회, 2003.
박수미, 「기지촌 여성들의 인간화를 위한 선교교육의 과제: 두레방 운영을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16,
부평역사박물관 편, 『(2015 학술총서)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_____, 『(2019 -2020 특별전 도록)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미군기지와 부평 사람들 이야기』, 부평역사박물관, 2020.
송상덕, 「미군기지촌의 재발견」,『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송지선, 「김명인의 〈동두천〉연작시에 나타난 양가적 장소성 연구」, 『우리말 글』 86, 우리말글학회, 2020.
안희숙,「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2008.
양기용, 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3,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오지연,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 의정부시 송산동 기지촌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오창은, 「1970년대 초 한국소설의 미군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유호명, 『(1960년생 토박이의) 의정부를 담다』, 의정부문화원, 2022.
의정부문화원 편, 『(의정부 마을기초조사 보고서) 마을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 의정부문화원, 2020a.
_____, 『미군부대 속의 의정부』, 의정부문화원, 2020b.
_____, 『헬로 뺏벌』, 의정부문화원, 2020c.
_____, 『미군부대 속 사람들』, 의정부문화원, 2021.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편, 『의정부시사』(1): 의정부의 생활공간,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2014a.
_____, 『의정부시사』(2): 매성 · 양주 · 의정부로의 변천,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2014b.
_____, 『의정부시사』(4): 의정부의 마을과 민속,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2014c.
_____, 『의정부시사』(6): 역사 향기 깃든 의정부,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2014d.
정근식 외,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 경기연구원, 2020,

정충실, 「춘천, 기지촌: 1960, 70년대 캠프페이지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화」, 『한국학연구』 68, 고려대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9.
진필수, 「미군기지와 오키나와 촌락공동체 지속과 재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a.
_____,「군용지료 재판을 통해서 보는 오키나와 촌락공동체의 구조와 변화」,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b.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 『지역과 역사』 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최보경, 「미군기지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사례 연구」, 『인문콘텐츠』 46, 인문콘텐츠학회, 2017.
_____, 「지역문화재생에서 '크로노토프'의 의미 연구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2016-17)〉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9.
최운희 · 김세준, 「민속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제주성읍민속마을 사례」, 『횡단인문학』 8, 숙명여대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의정부 美향군클럽 일대 근현대사 생활문화공간 조성」, 『경기일보』, 2022. 3. 6., http://www.kyeonggi.com/2401984(2022. 6. 11. 검색).
「의정부시, 문화도시 거점공간 활성화로 문화를 들~썩이다」, 『경기도정신문』, 2021. 8. 5.,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2(2022. 6. 11. 검색).
「'야경 돌기'를 아시나요: 군포의 옛 모습을 찾아서 ⑧」, 『군포신문』, 2009. 7. 7, http://www.gunponews.net/bbs/bbs.asp?exe=view&group_name=332&section=7&category=0&idx_num=9567&page=71&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2022. 6. 26. 검색).
「2021년 마을종합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 공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https://www.ggmaeul.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09&type=result&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마을종합지원사업&menuLevel=2&menuNo=78(2022. 06. 10. 검색).
「고양 · 의정부 · 양주시 잇는 '교외선' 2024년 재개통」, 『기호일보』, 2021. 8. 27,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022(2022. 6. 10. 검색).
「도시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47억 원 투입」. 『문화일보』, 2022. 3. 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16MW144242462110(2022. 6. 11. 검색).
「뺏벌 절반 경매 위기, 의정부시 발벗고 나서」, 『의정부뉴스』, 2015. 1. 4., http://www.uj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2022. 6. 11. 검색).
「夜警軍(야경군)으로變裝(변장)코 市內(시내)를橫行劫取(횡행절취)」, 『조선일보』, 1935. 12. 11.
「유영님 두레방 원장 "기지촌 성 착취 시스템, 국가 나서 뿌리뽑아야"」, 『파이낸셜뉴스』, 2017. 2. 20.,

https://www.fnnews.com/news/201702201244048437(2022. 6. 11. 검색).
「의정부 빼벌마을 주민들 불만 심화」, 『산경일보』, 2015. 5. 12., http://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97(2022. 6. 11. 검색).
「의정부 빼벌발전협의회 '빼벌마을 복합문화창조도시에 편입해 달라'", 『경기북부포커스』, 2016. 11.22., http://kbfocus.thesome.com/read.htm?vtype=pc&ns_id=22698(2022. 6. 11. 검색).
「의정부 '뺏벌' 주민 집회, "우리도 생존 할 권리가 있다"」, 『경원일보』, 2011. 11. 13.,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8139(2022. 6. 11. 검색).
「의정부 뺏벌마을 문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 실마리 푼다」, 『경원일보』, 2012. 11. 28.,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2030(2022. 6. 11. 검색).
「의정부시, 문화도시 거점공간 활성화로 문화를 들-썩이다」, 『경기도정신문』, 2021. 8. 5.,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2(2022. 6. 11. 검색).
「의정부시, 빼벌마을 공유토지분할 완료」, 『브레이크뉴스』, 2021. 4. 8., https://www.breaknews.com/798224(2022. 6. 11. 검색).
「전철협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뺏벌 이주대책위원회, 서울·의정부 규탄집회」, 『경원일보』, 2011.12.6.,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8354(2022. 6. 11. 검색).
「흥선동 연혁 및 유래」, 『의정부시』, https://www.ui4u.go.kr/cscportal/contents.do?mId=0316030000(2022. 6. 11. 검색).
『경원일보』, 2019.04.16., http://k1ilbo.com/quick/show.asp?idx=70697(2022. 6. 11. 검색).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ope_city/222767155649(2022. 6. 2. 검색).
『전국철거민협의회』, 2011.04.21, https://cafe.daum.net/pw1989/BhxS/117?q=%EA%B3%A0%EC%82%B0%EB%8F%99+%EC%A0%84%EC%B2%A0%ED%98%91&re=1(2022. 6. 11. 검색).
Bruce Richards, 「Camp Stanley」, https://brucerichards.com/army/campstanley.htm (2022. 5. 20. 검색).

【Abstract】

Changes in the region around the U.S. military base and community response and practice of villagers
—Focused on Gaejeong-dong and Gosan-dong Pebeol Village in Uijeongbu-

Kim, Tae-Woo*

In this study, the dynamic changes in life of villagers near the US military base, centered on Ganeung-dong and Gosan-dong Pebeol village, Uijeongbu-si, and variety of practices to respond to the changed environment were examined.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US military base was built in Ganeung-dong in 1953, an ordinary rural village began to transform into a base village. In the late 1960s, houses were already concentrated from the front of the unit to the three-way intersection, and in the 1970s, a shopping street was formed. In the case of Pebeol, there were originally only 2-4 houses, but when a US military base was built nearby in 1953, various people flocked to the village and the village began to expand.

Next, as U.S. bases were established and economic activities against U.S. soldiers and units increased, business districts flourished and their livelihoods changed. The number of clubs, shops, restaurants, and tailor shops targeting the US military, as well as hairdressing salons and room rentals for women working in clubs, increased.

Next, a community culture of its own was formed in the midst of a sudden formation of villages or shopping streets due to the US military base. In particular, in Pebeol Village, the singing contest centered on the women's association and youth association was held by the nearby villagers as well and lasted for over 50 years, which is a good example of the communit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villagers at that time. In the case of Ganeung-dong, it seems that around 1960, side areas and night-time activities played a role in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 Assistant Professor, Rinascita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hinhan Univ.

Finally, in 2018, as the US military bases in Gajeong-dong and Pebeol were closed, the economy of these villages began to sharply tighten. Most of the shops have closed and they have left the village, but the residents who remain today are developing various cultural practices to revitalize and revitalize the area.

In the past, the villages around the US military base we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military campsidetown' and were given a uniform and fragmented sense of placeness.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residents of this area have created and maintained their own community organization and culture, and are actively responding to the crisis caused by the relocation of the US base and are trying to revitalize the village through various practices.

Keywords: military campsidetown, US base, Ganeung-dong, Pebeol, Camp Red Cloud. Camp Stanley. cultural practice, placeness.

접수일: 2022.06.30.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3.